

AI 집중관리지역 방역강화 대책

농림수산식품부

1. 추진배경

- 2010/2011년 AI 발생 원인 역학조사 결과(2011. 8. 31) 야생조류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
- 철새 도래시기(북방철새 : 10~12월, 남방철새 : 4~5월) 동안 야생조류 접촉 차단 등 방역활동 강화 필요
-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2011년 10월부터 특별대책기간 지정·운영 중
- 국내 유입여부 조기 발견 및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특별대책 필요
 - ※ 집중관리지역 :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·항체 분리지역(울산 1, 경기 10, 강원 1, 충북 3, 충남 3, 전북 5, 전남 8, 경북 4, 경남 1)
- 이에 집중관리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 지정·운영

2. 농장별 책임제 운영 방안

- ① 집중관리지역(36개 시·군) 내 가금류 사육현황을 참고하여 대상농가 최종 확정
- 대상 가축은 가금류인 닭, 오리, 메추리, 칠면조, 거위, 관상조, 타조, 꿩 등이며, 1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대상에 포함
-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(3km)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별도 분류

- ② 시·군별 사육현황을 고려하여 농장별 책임자 지정
- 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당 10농가 이내로 농장별 책임자 지정
 - ※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는 축산관련 부서 인원을 농장별 책임자로 지정
- ③ 농장별 책임자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전화예찰
- 월 2회 이상 책임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점검표를 작성후 시·도에 제출
 - ※ AI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보상금 감액, 사람 및 차량 출입기록 의무화 등 농가 방역책임 강화사항 지도·홍보
 - 철새 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“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(참고자료)” 홍보 및 지도
 - ※ 그물망 설치, 구서, 생석회 살포, 계사내 문 개폐 등 참여 독려
 - 주 1회 이상 책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·도에 제출
 - ※ 책임 농장 방문시 사전에 유선 연락을 통해 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대책 기간 중 월 1회 이상 홍보용 SMS 발송

- ④ 농장별 임상 및 전화예찰 실적 보고
- 현행 “AI 방역대책 주간 추진현황”에 따라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임상 및 전화예찰 실적 보고
 - 임상 또는 전화예찰시 AI 의심축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통보
 - ※ 세부사항 등은 ‘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’에 따라 조치

참고자료

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효과적 방법

□ 그물망·쇠그물망의 설치

- 계사에는 2cm 이하 그물코의 그물망을 친다.
- 이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설치하며 틈새가 없도록 한다. 또한 그물망의 파손이 보일 때에는 즉시 보수한다.

□ 구서법(쥐잡이)

- 계사의 틈을 막는다.
- 쥐를 본 경우에는 우선 그 침입경로를 찾아서 포획장치를 설치하거나 살서제의 사용으로 구제

□ 농장주위에 생(소)석회 살포

- 계사 주변 및 농장부지 주변에 정기적으로 2~3m 폭으로 생(소)석회를 살포한다. 또한 농장 내 도로에도 생(소)석회 등을 살포한다.

□ 계사내의 문의 개폐

- 계사 내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문이 닫히도록 한다.